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714) 904-1202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연준, 3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리인상 뒤에는 곧바로 보유채권 매각을 개시할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정책 금리를 이전 예상보다 더 빨리 올릴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의사록은 FOMC "참석자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조기에,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 사진=shutterstock

앞서 지난달 FOMC가 끝난 뒤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금리전망에서는 대부분 위원들이 올해 최소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인상을 예상한 바 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올 6월 대신 3월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곧바로 첫번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준은 이달 25~26일 FOMC를 열고, 3월에는 15~16일에 통화정책 회의를 연다. 금융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기울고 있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도 지난달 17일, 오는 3월 회의가 금리인상과 관련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지난해 미국 판매 역대 최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작년 미국에서 148만9118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21.6%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연간 최대 실적인 2016년(142만2603대) 기록을 5년 만에 경신했다. 현대차의 작년 판매 대수는 78만7702대로 전년 대비 23.3% 증가했다. 제네시스 판매를 제외하면 2016년, 2015년에 이어 역대 3위 판매 실적이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량(제네시스 제외)은 69만4349대로 역대 가장 많았다. 법인과 렌터카 업체 등에 공급하는 플리트 판매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다만 플리트가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해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제네시스는 작년 4만962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202.9% 증가했다. GV80이 2만311대, GV70이 1만740대, G70이 1만718대 각각 판매됐다.

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70만1416대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연간 판매량이 70만대를 돌파했다.

차종별로 K3 11만5929대, 스포티지 9만4601대, 텔루라이드 9만3705대를 각각 판매했다.

미국 지난해 무역적자 역대 최대 유력

수입은 급증한 반면 수출은 둔화되면서 지난 11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802억 달러로 전월보다 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9월 814억 달러의 사상 최대 기록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815억 달러였다.

11월 수입은 3천44억 달러로 전월보다 4.6% 증가한 반면, 수출은 2천242억 달러로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사진=shutterstock

특히 상품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151억 달러 늘어나 무역적자 심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

이로써 미국의 지난해 1~11월 누적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28.6% 급증해 역대 최대폭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미국의 경제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천문화적인 부양책 등에 힘입어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입품 구입을 늘리는 반면,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이 더딘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수출품을 덜 사들이는 추세다.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Charles Lee/ Broker
Lic. #01361071/ #01861239

상담문의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2022년 임인년에는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찰스 리 올림



***올해부터는 같이 일하실 Agent/Broker 도 환영합니다.**